주간 테러동향
Weekly Terrorism Trends

'20.9.4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 Weekly Terrorism Trends

유 럽

○ **英, 보호관찰 조건 위반 테러범 징역형 선고**

- 英 법원은 ISIS 제작 선전물 소지죄로 보호관찰 중인「제이드 켐벨」(女, 29)에 대해 스마트폰 소유 및 이메일 계정 사실을 경찰에 보고하지 않아 보호관찰 조건을 위반하였다며 징역 1년을 선고

○ **佛, '샤를리 에브도' 테러범 공판 개시**

- 9.2 프랑스 법원은 '15년 주간지 '샤를리 에브도' 총기 테러의 주범인 쿠아치 형제와 쿨리발리*에게 자금을 조달하고 무기를 전달하는 등 테러를 조력한 공범(14명)에 대한 공판 계획을 발표

  * 무함마드 만평을 게재한 샤를리 에브도 편집국에 난입해 12명을 총으로 살해 후 인질극을 벌이다 사살

미 주

○ **UN, 테러예방을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*와 협정 체결**

- 9.1 UN 대테러 사무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와 항공기 이용 승객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협정을 체결하였으며, 同 협정은 테러범 및 중대 범죄자의 이동을 탐지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

  * '47년 全세계 국제민간항공의 안전과 항공시설 발전을 위해 체결 / 193개국 가입

○ **美, UN안보리 대테러 결의안 홀로 반대**

- 9.1 AP통신은 UN안보리가 ISIS를 비롯한 테러활동 가담자의 사법처리·갱생·사회 재통합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, 14개 이사국이 찬성하고 미국만 반대*했다고 보도

  * ISIS 테러조직에 가담한 외국인 전투원들의 본국 송환 촉구를 담지 않았다는 이유

아 · 태평양

○ **아프간 前 대통령, 미국의 '테러와의 전쟁'은 큰 실수**

- 8.29 「하미드 카르자이」 아프간 前 대통령은 미국이 아프간에서 전개한 소위 '테러와의 전쟁'은 잘못된 정책이라며,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

○ **경찰청, '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' 운영**

- 경찰청은 법무부·국방부·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테러·범죄 예방 일환으로 9.1~30간 '불법무기류* 자진신고 기간'을 운영하고 있다며, 형사·행정책임이 면제되는 同 기간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당부

  * △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, △화약류(화약·폭약·실탄·포탄 등), △도검, △분사기, △전자충격기, △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

중 동

○ **ISIS, 전투원 모집 등 활동 재개**

- 현지언론은 ISIS가 코로나19 혼란을 틈타 사회에 불만이 가득한 외로운 늑대를 모집하고 전투원을 양성하는 등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데, 신규 가담자 대다수가 印尼 출신이라고 보도

  *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코로나19 누적 확진자(약 16만명)와 사망자(약 7천명)가 가장 많은 국가로 국민들의 정부 불만 심화

○ **이집트, 테러 주도 혐의로 '무슬림형제단' 최고지도자 대행 체포**

- 8.28 이집트 내무부는 무슬림형제단*의 최고지도자 대행인 「마무드 에자트」를 무장단체 조직 및 주요 테러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하고, 조직원들과 연락하는데 사용한 노트북 및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발표

  * 1928년 설립된 이집트 최대 이슬람 조직, '13.7월 「엘시시」 대통령이 무슬림형제단 간부 출신인 「무르시」 前대통령을 쿠데타로 축출한 뒤 테러조직으로 지정

역사 속 테러사건

Weekly Terrorism Trends

이스라엘 연쇄 자폭테러

○ '03. 9. 9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서 2차례 연쇄 자폭테러 발생

- 1차 폭발은 텔아비브 근교 이스라엘軍 기지 외곽 버스 정류장에서 이스라엘 군인을 노린 테러로 사망 8명·부상 30여명 발생
- 2차 폭발은 식당과 상점이 밀집해 있는 예루살렘 서부지역의 힐렐 카페에 입장하려던 테러범이 보안요원의 제지를 받자 입구에서 자폭, 사망 7명·부상 40여명 발생

○ 同 테러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창설자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「셰이크 아흐메드 야신」에 대한 암살시도* 이후 사흘만에 발생

* 9.6 이스라엘軍이 전투기와 헬기를 동원하여 「셰이크 아흐메드 야신」의 거처(아파트)를 공격했으나, 同人은 생존

○ 테러 발생 직후, 하마스는 "우리 국민에 대한 유혈공격에 맞선 당연한 대응"이라고 공개 발표

○ 한편,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공격을 맹비난하며 강경대응을 지속, 결국 '04. 3월 미사일 공격을 통해 「셰이크 아흐메드 야신」을 폭살

테러 상식

Weekly Terrorism Trends

< 하마스(Hamas) >

■ **(결성)** 이집트 '무슬림 형제단'의 팔레스타인 지부소속 강경세력들이 1987년 제1차 '인티파다'(對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민중봉기)를 계기로 결성

※ 테러단체 지정 : 미국('97.10), 영국('01.3), 캐나다('02.11)

■ **(연계세력)**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(PIJ), 인민저항위원회(PRC)

■ **(핵심인물)** 칼레드 마샬(現 지도자), 이스마일 하니예(군사부문 책임자)

■ **(활동지역)** 팔레스타인 가자, 서안지구 및 레바논지역 팔레스타인 난민캠프

■ **(활동수법)** 對이스라엘 군·민 대상 폭탄테러, 총격, 로켓공격 및 납치

■ **(주요테러)** '08.12~'09.1 이스라엘軍과 하마스간 '가자전쟁' 발발 800여명 사망

'12.11 텔아비브에서 PIJ조직원과 버스폭탄테러 자행, 29명 부상